

# 조합원 59%, "노동자 정치교육과 정치투쟁 강화해야"

8 노동과세계 송승현 | © 승인 2020.03.04 15:17

## 민주노총 정치위,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의 제1노총 공식화에 대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 노동과세계 편집국 (자료사진)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가 "노동자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정치교육과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강령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4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노총 일반 조합원과 간부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고 2020년 정치사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자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는 총 4,314명이 응답했다. 이중 2,098명은 온라인으로, 나머지 2,216명은 현장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대체로 만족' 한다는 답변은 9.5%에 불과했다. 반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52.7%, '점차 바꾸면 살만하다'는 응답은 29.6%에 달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적폐청산, 사회개혁, 민생경제 되는 게 없으니 지지를 철회' 한다는 답변이 30.3%로 나타났다.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25.9%였다. 반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 지켜야'한다는 비율도 28.0%에 이르렀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진보정당'이라고 답한 비율이 17.5%에 불과한 반면, '보수정당'은 26.9%, '보수정당이지만 개혁의지가 있다'는 답변은 25.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조합원도 30.2%나 됐다.

설문에 응답한 조합원 중 35.4%가 '돈 정치, 엘리트 정치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에서 노동자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27.7%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 금지, 노조의 정치참여 금지 등 악법을 고치면 노동자 정치도 희망이 있다'고 응답했다.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출마할 수 있으니 만족'한다는 응답은 17.8%였다.

민주노총이 정치사업을 할 때 강조해야 할 것으로 '엘리트 정치인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정치교육,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전체 59%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정치교육과 정치실천 행사를 할 때 참여하겠다는 조합원은 '반드시 참여' 한다면 24.7%, '시간나면 참여' 한다면 42.3%가 응답했다.

최근 이슈였던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위해서 지지 정당을 하나로' 하자는 응답(23.0%)과 진보정당들의 연대와 연합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22.9%), '조합원이라도 각자 생각이 다르니 조합원이 알아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게 하자는 응답(21.9%)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노동과세계 송승현 now.worknworld@gmail.com